

공 개\*



의안번호	제 330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11. 23. (제 21 차)	

##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2. 11. 23.

## 1. 의결주문

「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<sup>10.27일</sup>」 및 「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<sup>11.10일</sup>」에 따른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## 3. 주요골자

가. 규제지역 내 지역별·주택가격별 LTV 완화(<별표21>제2호가목, 제2-1호 나목, 제2-2호 가목)

- 규제지역 내 지역별·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LTV를 50%로 상향하여 단일화(다주택자는 현행 유지)

나.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(<별표21>제8호)

- 투기·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·1주택자(기존 주택 처분조건부) 대상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(LTV 50% 허용)

다. 서민·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(<별표21>제2호바목)

- 서민·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(4억 → 6억)하며,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%p로 단일화(LTV 최대 70% 허용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(규제 미포함)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규정변경예고(2022.11.10. ~ 11.16.)

<별 지>

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-000호

##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보험업감독규정 <별표 21>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2호가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험회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70%(규  
제지역의 경우 50%)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

제2장제2호가목 후단 중 “다음”을 “상기”로 한다

제2장제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로  
하며, 같은 호 마목(1)부터 (3)까지 외의 부분 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  
로 하고,

같은 호 바목(1)부터 (4)까지 외의 부분 중 “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담보인  
정비율에도”를 “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”로, “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  
한 담보인정비율과”를 “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”로 하며, 같은 목 (1) 본  
문 중 “가목 내지 다목에서”를 “가목에서”로, “다음의 표와 같이”를 “20%p 이  
내로”로 하고, 같은 목(2) 중 “4억원을”을 “6억원을”로 하며, 같은 목 (3) 본문  
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로 하며, 같은 목 (4) 중 “가목 및 나목”을 “가  
목”으로 한다.

제2장제2-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 
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

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을 50%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

같은 호 라목(1) 및 (2) 외의 부분 중 “나목 및 다목”을 “나목”으로 하고,

같은 호 마목 중 “다목 및 제8호를”을 “나목을”로 한다

제2장제2-2호가목 중 “취급하는 경우”를 “취급할 때”로, “소재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”를 “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%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보험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50%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

제2장제2-2호나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가목, 나목 및 제8호를”을 “가목을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가목 내지 나목”을 “가목을”로 한다

제3장제3호라목(3)을 삭제한다.

제5장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장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장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장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가목 내지 다목”을 “가목”으로 하며, 같은 장 제16호가목 중 “나목 또는 다목”을 “나목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										
<p>&lt;별표 21&gt;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</p> <p>1. (생 략)</p> <p>제2장 담보인정비율(LTV)</p> <p>2. 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<u>보험회사의</u>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<u>다음의</u>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투기지역</th><th>투기과열지구</th><th>조정대상지역</th><th>기타지역</th></tr><tr><td>담보인정비율</td><td>40%이내</td><td>40%이내</td><td>50%이내</td><td>70%이내</td></tr></table> <p>나. <u>가목에도 불구하고, 보험회사가</u> 신규 고가주택 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<u>다음의</u>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</p>	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담보인정비율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70%이내	<p>&lt;별표 21&gt;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장 총 칙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장 담보인정비율(LTV)</p> <p>2. 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<u>보험회사는</u>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<u>70%(규제지역의 경우 50%)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하여 산출한 담보인정비율이 <u>상기의</u>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&lt;삭 제&gt;</p>
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						
담보인정비율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70%이내							

현		행		개 정 안	
구분		투기 지역	투기 과열지 구	조정 대상지 역	기타 지역
담보 인정 비율	9억원 이하분	40%이 내	40%이 내	50%이 내	70%이 내
	9억원 초과분	20%이 내	20%이 내	30%이 내	
다. (생 략)					
라. <u>가목 내지 다목</u> 에서 정한 담보 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추가대 출이 없이 잔액, 만기, 상환방법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속 또 는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대출채 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, 중도금 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 환되는 경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 용할 수 있다.					
마. <u>가목 내지 다목</u> 에서 정한 담보 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 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하거나 금리, 만기, 상환방법,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					

다. (현행과 같음)					
라. <u>가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이 없 이 잔액, 만기, 상환방법을 변경하 지 아니하고 상속 또는 채권보 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을 통 해 불가피하게 대출채무를 인 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보 유수에 상관없이 종전 차주에 적 용된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 용할 수 있으며, 중도금대출이 증 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 우에는 동 중도금대출 취급시 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.					
마. <u>가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차주의 상 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, 만기, 상환방법, 거치기간 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					

현행	개정안
<p>는 경우(단,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.)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(1) ~ (3) (생략)</p> <p>바. 보험회사는 <u>가목 내지 다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가목 내지 다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(1) 규제지역에서 서민·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<u>가목 내지 다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<u>다음의 표와 같이</u> 가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<u>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	<p>(단,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.)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(1) ~ (3)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보험회사는 <u>가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가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(1) 규제지역에서 서민·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<u>가목</u>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<u>20%p 이내로</u> 가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<u>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



현	행	개	정	안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담보인정비율 가산한도</th></tr><tr><td>6억원 이하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분)</td><td>+20%p 이내</td></tr><tr><td>6억원 초과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분)</td><td>+10%p 이내</td></tr></table>		구분	담보인정비율 가산한도	6억원 이하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분)	+20%p 이내	6억원 초과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분)	+10%p 이내			
구분	담보인정비율 가산한도									
6억원 이하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분)	+20%p 이내									
6억원 초과분 (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분)	+10%p 이내									
(2) (생략)		(2) (현행과 같음)								
(3)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<u>가목 내지 다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 차감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.		(3)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해당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<u>가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 차감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주택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.								
(4)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<u>가목 및 나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		(4) 기타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기타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<u>가목</u>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			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
<p>차감하여야 한다.</p> <p>2-1. (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보험회사의 신규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</u></p>	<p>차감하여야 한다.</p> <p>2-1. (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을 50%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</u></p>														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투기지역</th><th>투기과열지구</th><th>조정대상지역</th><th>기타지역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담보인정비율</td><td>9억원 이하분</td><td>40%이내</td><td>40%이내</td><td>50%이내</td></tr><tr><td>9억원 초과분</td><td>20%이내</td><td>20%이내</td><td>30%이내</td></tr></table>	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담보인정비율	9억원 이하분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9억원 초과분	20%이내	20%이내	30%이내	
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										
담보인정비율	9억원 이하분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										
	9억원 초과분	20%이내	20%이내	30%이내											
<p>(1) ~ (4)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<p>라. <u>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.</u>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	<p>(1) ~ 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.</u></p> <p>(1) ~ (2) (현행과 같음)</p>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									
<p>마.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<u>가목 내지 다목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2-2. (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보험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<u>취급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투기지역</th><th>투기과열지구</th><th>조정대상지역</th><th>기타지역</th></tr><tr><td>담보인정비율</td><td>40%이내</td><td>40%이내</td><td>50%이내</td><td>미적용</td></tr></table> <p>나. <u>가목에도 불구하고, 은행이 고가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</u></p>	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담보인정비율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미적용	<p>마.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,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해서는 <u>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2-2. (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보험회사가 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<u>취급할 때 신탁재산에 포함된 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 50%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구분	투기지역	투기과열지구	조정대상지역	기타지역							
담보인정비율	40%이내	40%이내	50%이내	미적용							

현행					개정안
구분		투기 지역	투기 과열지 구	조정 대상지 역	기타 지역
담보 인정 비율	9억원 이하분	40%이 내	40%이 내	50%이 내	미적용
	9억원 초과분	20%이 내	20%이 내	30%이 내	
<p>다. (생략)</p> <p>라.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,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<u>가목, 나목 및 제8호</u>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마.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이외의 기업자금대출(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)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가목 내지 나목</u>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-3. (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제3장 총부채상환비율(DTI)</p> <p>3. 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</p>					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신규건설(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, 건축허가증 등을 통해 주택 신규건설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)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, 주택임대업자나 주택매매업자의 해당 신규건설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<u>가목</u>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마. 규제지역 소재 주택구입 목적이외의 기업자금대출(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 제외)을 주택 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<u>가목</u>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-3. (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장 총부채상환비율(DTI)</p> <p>3. (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</p>

현행	개정안
<p>상환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(생략)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제8호 나목에 따라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할 수 있는 경우</p> <p>(4) (생략)</p> <p>마. (생략)</p> <p>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</p> <p>4. (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사. (생략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</p> <p>5. (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)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.(단, 상속,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)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	<p>상환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(1) ~ (2)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(4)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</p> <p>4. (고액 가계대출 보유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)</p> <p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장 가계대출 및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 제한과 유의사항</p> <p>5. (주택보유세대에 대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) 보험회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.(단, 상속,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제외)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

현행	개정안
<p>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호 <u>가목 내지 다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라. (생략)</p> <p>6. ~ 7. (생략)</p> <p>8. <u>(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관련 담보대출 취급제한) 보험회사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대출(주택관련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포함한다)을 취급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가. 상속,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</p> <p>나. <u>재건축·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다. <u>입주자모집 공고(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, 재건축·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</u></p>	<p>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호 <u>가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우 관리처분인가)시에는 초고가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으로 기존에 취급된 이주비대출, 중도금대출(분양주택, 재건축·재개발 주택)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</u></p> <p>9. (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) 보험회사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<u>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10. (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) 보험회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<u>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 차감하여야 하며,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</p>	<p>9. (1주택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) 보험회사가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, 이 경우 <u>제2호 가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(2주택 이상 세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요건) 보험회사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<u>제2호 가목에서</u>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%p를 차감하여야 하며, 보험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차</p>

현행	개정안
<p>우에는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11. ~ 15. (생략)</p> <p>16. (생략)</p> <p>가.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, <u>제2-1호 나목 또는 다목</u>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17. ~ 19. (생략)</p>	<p>감하지 않을 수 있다.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로, <u>제2-1호 나목</u>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~ 19.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정책과	보험감독국
연락처	02-2100-2835	02-3145-7450